

## 강성호의 “한국교회의 도덕적 성품의 형성”에 대한 논평

한상화 (ACTS, 조직신학)

본 논문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을 심각하게 문제 삼아 그 문제의 중심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성경적 내러티브에 충실한 공동체적 도덕적 품성을 형성하는 것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의 문제와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한국 교회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자화상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일부 미디어의 잘못된 네거티브 어법이 아닌,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하며 제시하고 있기에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성품윤리와 리처드 니버의 문화 유형론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 한국교회의 도덕적 성품의 왜곡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 점도 그렇고 그 해결 방향으로 성경적 내러티브에 충실한 도덕적 품성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야말로 본 논문의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요약은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현 포럼의 성격 상 이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인지 궁금합니다. 논문의 각주도 별로 없고 논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단편의 연구 논문으로 기획되지 않고 이미 연구된 학위 논문에 대한 요약인지요? 이 글이 어떤 성격의 글인지 불분명하여 질문 드리봅니다.
2. 한국교회의 윤리적 문제점 분석의 이론적 도구로서 하우어워스의 성품윤리와 리처드 니버의 문화 유형론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널리 알려진 접근들 가운데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신 것인지요? 왜 하필 이 둘인지? 혹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니버의 분석은 보다 대외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하우어워스의 분석은 보다 대내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적 윤리 특별히 성품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라던지? 논문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한 근거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논문의 III장 2번의 제목이 한국 교회의 도덕적 성품의 형성이고, IV장 5번도 같은 제목으로 표현되어 있고, 무엇보다 논문 전체 제목이 그러한데, 논문 전체 제목이 지향하는 바, 즉 본 논문의 논지가 진술되는 부분이 IV장 5번이고 그것이 결론부에 반복되어 맺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III장 2번의 제목은 달리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재 그 내용도 한국교회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교회의 도덕적 품성 형성에 대하여 진술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4. 니버의 문화 유형론을 한국 교회에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한국 교회의 윤리적 문제가 세상에 동화되어 나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논점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실제적으로 니버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 유형은 기독교 분파 중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진보진영의 유형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의

흐름과 발맞춰 함께 변화해 가는 유형을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오히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을 적극 표방하고 기독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부류라고 보아야지 대부분의 보수 진영의 기독교 분파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 가운데 보수진영의 교회는 “문화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개혁주의를 지향하지만 과거 대다수 교회의 담론은 근본주의 형태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현재도 많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가르치고 실천하고 지향하는 바와 사회의 행동양식은 서로 대립되어서 실제 성도들의 삶에 있어 그 둘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신앙과 실천의 이원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며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 삶의 양식을 강조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세상과 교회 사이의 이중적 삶의 방식 문제는 본질적인 교회의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여하튼 저자가 니버의 분석을 가져다 쓰는 방식이 그 다음에 나오는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 내러티브와 한국 교회성장 내러티브가 서로 닮았다는 본인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적인 끼워 맞추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5. 역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볼 때 교회와 사회의 내러티브 동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앙적 혹은 윤리적 잣대만을 적용하여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의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자의 방향성과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70년대의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쉽사리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눈으로 과거를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윤리학자들은 조금 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나 과거의 사건들을 반성하며 평가할 때, 과오와 부도덕한 행위들이 모든 평가 위에 그늘을 드리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대의 시대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다 엄밀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다각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기술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성장 내러티브의 폐해도 많이 있지만 교회의 폭발적 성장이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신앙적 열의와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6.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충실하게 본받는 성품의 훈련장이 될 수 있을까? 예수의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것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죄인이 이웃을 위한 존재로 변화되는 구원 사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실질적인 답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음은 요즘에 매우 흔하게 개인주의적인 구원 개념으로 치부되며 평가절하 되고 대신에 공동체적 내러티브적 윤리적 버전의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신학적 표현들과 내용들 가운데 실질적 영적인 핵심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논문을 쓰신 저자께서도 이 복음의 핵심의 기초 위에서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결여하고 있는 도덕적 품성 형성과 함양을 말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한 글 잘 읽었고 좋은 논문으로 잘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